

<하기 글은 2016년 3월 14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9일,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3월 정기회의가 기흥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최병덕 기흥동장을 비롯해 기흥동 사회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협의회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봄처럼 생동감이 넘쳤던 3월 정기회의의 현장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 사진 출처: 한국도로공사 공식 블로그

정기회의의 시작에 앞서 기흥동에 위치한 명소, '기흥휴게소'에 대해 잠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용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기흥휴게소는 체험형 아웃도어 전문쇼핑몰과 인공야벽, 캠핑 체험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삼성전자가 진행한 주요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며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 삼성희망드림 협약식 △ 사회적기업 나눔장터 △ 문화예술 객석 나눔 활동인 위시존(Wish Zon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위원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임직원들의 테마 봉사활동도 함께 소개됐는데요. 밑반찬 만들기, 제빵, 이불 세탁, LED 전등 교체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가 펼쳐지는 만큼 위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어서 지난 정기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의 진행 현황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삼성전자가 2016년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사회 협력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지역주민 참여행사, 사업장 인프라 개방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양한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인접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던 화재를 진압한 미담이 전해져 훈훈함을 더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안전과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에스원 소속 박경록 전임이 폐자재 더미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을 빠르게 진압하여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변 환경정화활동도 펼쳤는데요. 자칫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이번 소식을 접하며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안도하는 동시에 박경록 전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3월 정기회의는 황관수 기흥동 노인회장의 인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황관수 기흥동 노인회장은 "직접 회의에 참여해보니 삼성전자와 용인 소통협의회 위원들이 지역사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아끼는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소감과 당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흥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3월 정기회의의 현장을 전했습니다. 이날은 소통협의회 위원들과 기흥동 사회단체장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장내 분위기가 후끈했는데요. 더욱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